

장흥군, 2023년 공공비축미 '새청무·강대찬' 최종선정

매입품종 변경...2024년부터 정부 보급종 생산 예정 내년 재배 농가 자율교환 통해 종자 미리 확보해야

장흥군은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새청무와 강대찬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매입품종은 지난 1월 결정했으나, 품종선정 협의회를 통한 농가들의 지속적인 품종변경요구와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가 매입제한품종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입품종 선정협의회가 다시 개최됐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읍면 및 농업단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새청무, 강대찬, 신동진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품종 선정협의회에서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새청무와 강대찬으로 선정했다. '강대찬(전남10호)' 품종은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중만생종으로, 도복과 수발아, 환원마름병, 줄무늬마름병에 강하다.

다만 질소질비료 과용시 미질이 크게 저하되며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과 도열병에는 약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24년부터 정부 보급종 생산 예정이므로 내년 재배할 농가는 자율교환을 통하여 종자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이 변경으로 농업인이 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품종 검정제 위반 농가가 없도록 종자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라오스 딸랏라오와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11월 1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최대 도매 시장인 딸랏라오(TLL)와 완도 수산물의 라오스 전역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비엔티안 싸이타니 지구에 위치한 도매 시장 딸랏라오는 라오스 전역에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 도소매 시장 운영, 국내 유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등 완도군과 라오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라오스를 대표하는 국민 기업 코라오그룹과 함께 라오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완도 특산물이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

라오스 시장에 완도 수산물 수출·직거래 장 마련 라오스 국민 기업 '코라오그룹' 업무 협약 체결 가교 역할

딸랏라오의 주요 거래 제품은 채소, 과일, 향토 음식, 생선, 해산물, 가공류, 냉동식품, 건식품 등이다. 군은 협약을 통해 딸랏라오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라오스 도매 시장에 완도 수산물을 수출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물꼬를 텅다. 또한 완도군이 라오스 정부 및 기업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

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홍보관 구축, 신제품 개발, 판촉 행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오스의 국민 기업 코라오그룹(현 LVMC 홀딩스)의 오세영 회장은 2020년 장보고한상 어워드의 대상 수상자로 이번 업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식도락 여행지로 주목 오는 30일까지 황금돼지 인증샷 이벤트 등 행사 개최

강진군이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된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일대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11월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로 지정하고 주말 음식점 일제 할인 이벤트, 황금돼지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 기간 주말, 일반 고객에 한해 음식점 전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손난로, 핸드크림 등 행사 홍보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거리 방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로보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학동 문화관광실장은 "남도음식거리로 조성된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방문의 달을 운영한다"며 "많은 분들이 병영돼지불고기거리를 찾아 강진 병영돼지불고기의 맛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 인증 이벤트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군·경 합동 화재 발생 상황 등 재난 대비 현장 훈련

진도군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간소화 진행되던 안전한국훈련은 올해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은 훈련에 앞서 지난 9일(수) 진도소방서, 진도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회의를 진행해 훈련 전반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진도여성플라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상황을 설정한 후 진도군청 종합상

해남군, 김장철 앞두고 절임배추 등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해남절임배추는 해남산 배추로만" 집중 지도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한 달동안 780여개 절임배추 생산시설에 대해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 대비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거나 영업등록 없이 절임배추와 함께 김치양념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관리, 위생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자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